

meritz 메리츠금융지주

2025년 2분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

2025.8

25년 2분기 이행현황 - Summary

- ✓ 25년 6월말 기준 fwd PER은 8.0배로 자사주 매입·소각 수익률은 **12.5 %**. 당사 요구수익률 **10%** 보다 높음
→ 자사주 매입 중심 주주환원정책 지속
- ✓ 23년 주주환원정책 시행 이후 누적 TSR은 **172.2%** 기록 중. 25년 6월말 기준 3개년 연평균 TSR은 **65.1%**
- ✓ 25년 3월 5,500억원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. **7월말 기준 약 4,687억원(407만주) 취득**

자본 배치

자사주 매입·소각 수익률 > 현금배당 수익률

$$\frac{1}{fwd PER} = \frac{1}{8.0} = 12.5\% \quad COE = 10\%$$

총주주수익률(TSR)

23년 주주환원정책 시행 이후 누적 TSR : **172.2%**

25년 6월말 기준 3개년 연평균 TSR : **65.1%**

자사주 매입

25년 3월 총 5,500억원 신탁계약 체결분 중

25년 7월말 기준 약 4,687억원(407만주) 취득

Contents

이행현황	3
시장 평가 지표 현황	7
기타	9

1. 이행현황

(1) 자본 배치 이행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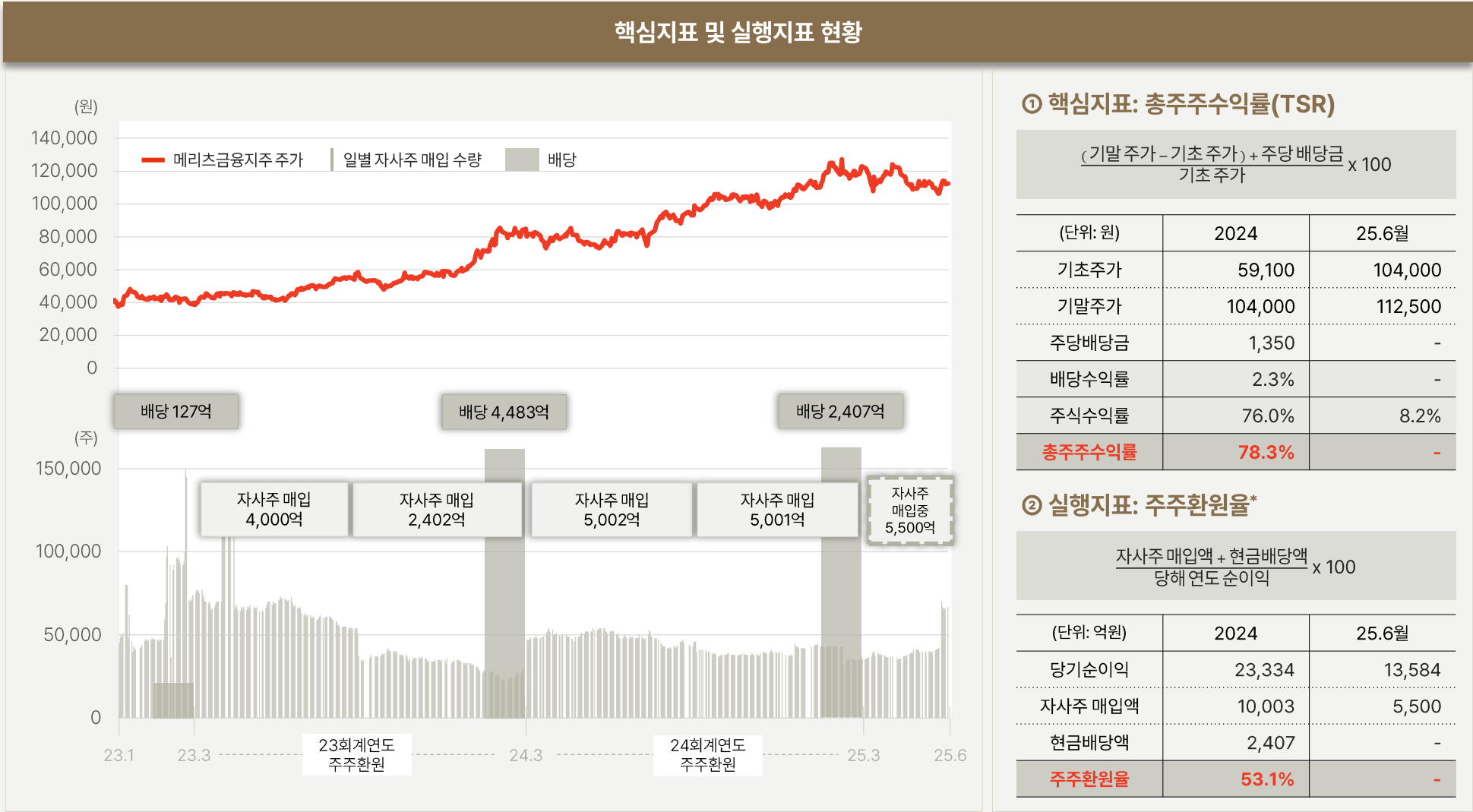
2025회계연도 주주환원 이행현황

	2025회계연도	자본 배치 방법
정책	내부 투자수익률과 주주환원 수익률을 비교하여 중기 주주환원정책 결정 : 2023회계연도부터 3개년 간 지주 연결 당기순이익의 50% 주주환원 결정(2022년 11월 발표)	연결 당기순이익 <pre> graph TD A[연결 당기순이익] --> B[내부 투자] A --> C[주주환원] C --> D["$\frac{1}{fwd PER} = \frac{1}{8.0} = 12.5\% > COE = 10\%$"] D --> E[자사주 매입·소각] D --> F[현금배당] </pre>
실행	자사주 매입·소각 수익률과 현금배당 수익률 간의 경합이며, 주가 저평가 수준에 따라 결정 = Max(자사주 매입·소각 수익률, 요구수익률)	
이행현황	25년 6월말 기준 fwd PER은 8.0배이며, 자사주 매입·소각 수익률은 약 12.5%로 요구수익률 10%를 상회 - 따라서 자사주 매입·소각 중심의 주주환원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25년 3월 체결한 자사주 신탁계약 5,500억 중 7월말 기준 약 4,687억(407만주) 취득. 현재 취득 중.	

* fwd PER은 25년 6월말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이며, COE는 24년 7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서 언급한 수치

1. 이행현황

(2) 핵심지표 및 실행지표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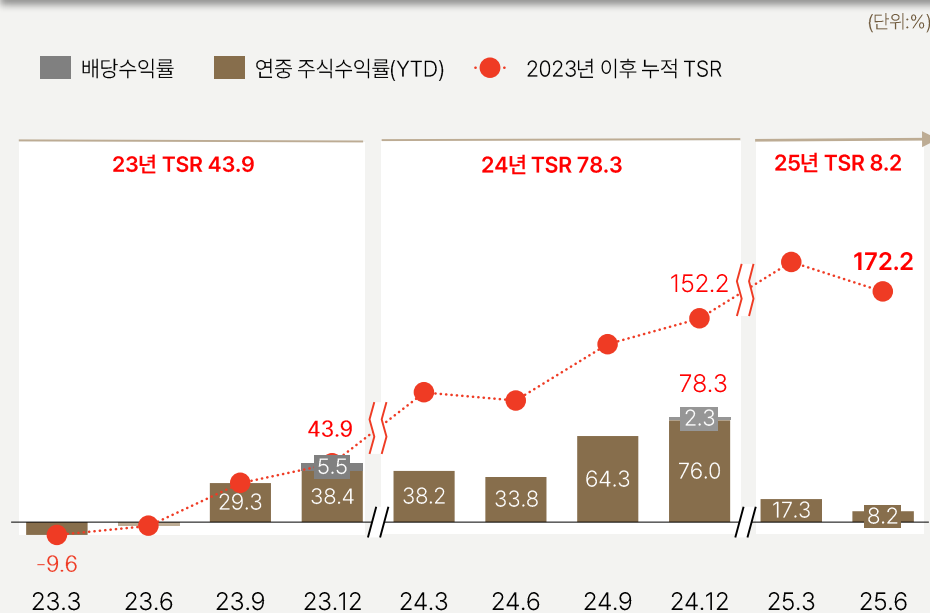
* 주주환원율 산정기준은 3월 정기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함. 전년도 주주총회 직후부터 당해년도 주주총회까지 실행한 자사주 싹타 설정과 당해년도 결정된 현금배당 포함

1. 이행현황

(3) 핵심지표 현황 : 총주주수익률(TS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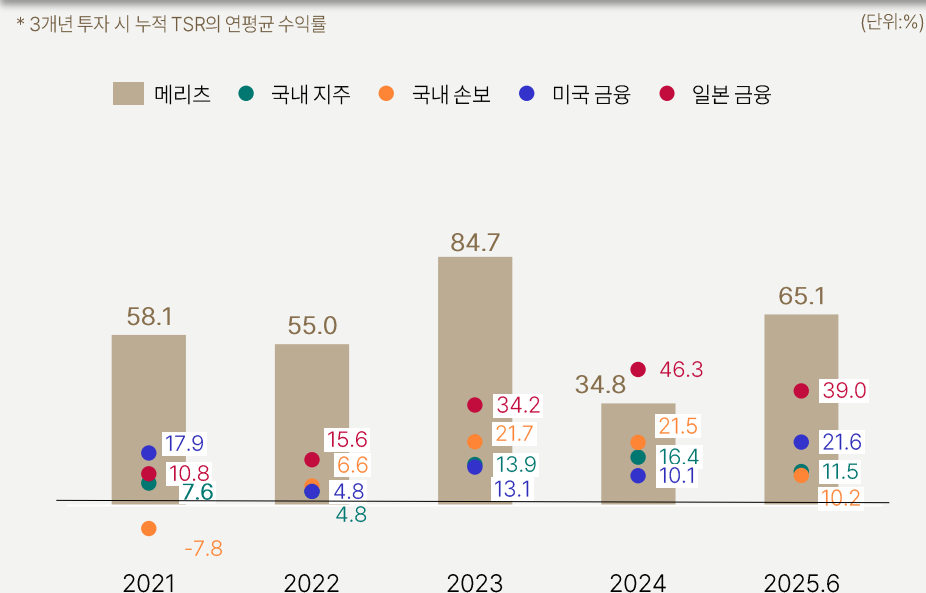
- ✓ 25년 6월까지 연중 TSR은 **8.2%** 시현. 23년 주주환원정책 시행 이후 누적 TSR은 **172.2%** 기록 중
- ✓ 25년 6월말 기준 3개년 연평균 총주주수익률(TSR)은 **65.1%**, Peers 대비 Outperform

주주환원정책 시행 이후 TSR 추이



2025.6월 연중 TSR : 8.2%
2023년 이후 누적 TSR : 172.2%

3개년 연평균 TSR



2025.6월 3개년 연평균 TSR : 메리츠 65.1%
 일본 금융 39.0% · 국내 손보 10.2% · 국내 지주 11.5% · 미국 금융 21.6%

* Source: Bloomberg, Yahoo Finance
 - 미국 금융: Berkshire Hathaway, Prudential, JP Morgan Chase, Bank of America
 - 일본 금융: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,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, Tokio Marine Holdings, MS&AD Insurance Group Holdings
 - 국내 손보: 삼성화재, DB손보, 현대해상
 - 국내 지주: KB금융지주, 신한금융지주, 하나금융지주
 ** 연중 TSR은 회계연도 기준 배당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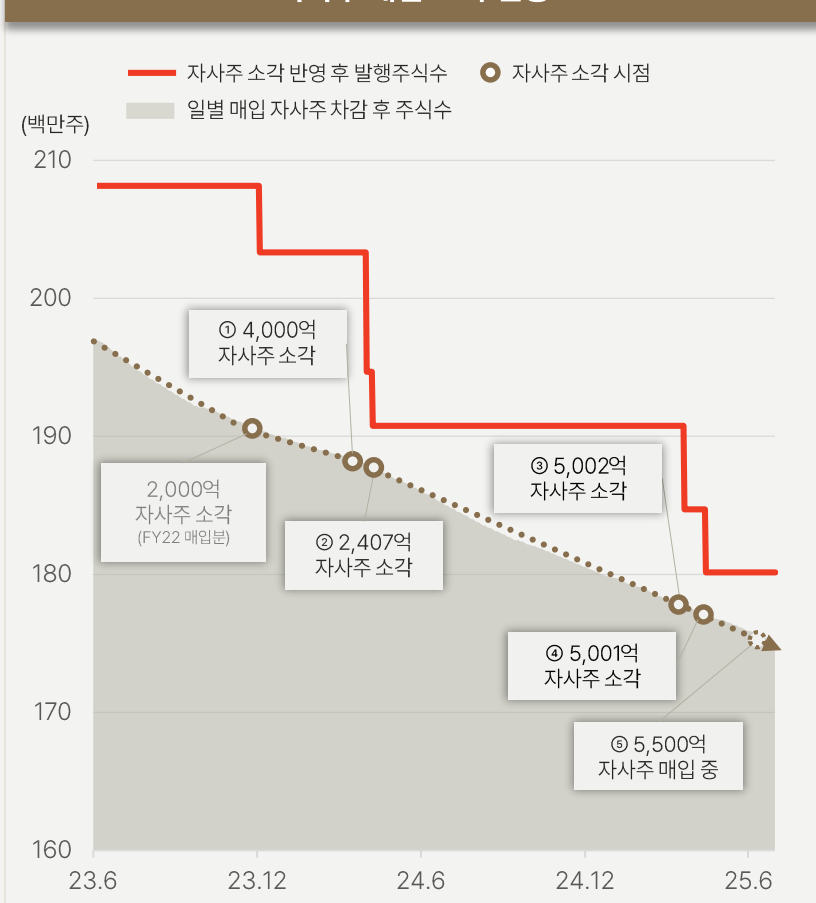
1. 이행현황

(4) 실행지표 현황 : 자사주 매입·소각

✓ 자사주 매입은 신탁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, 매입한 자사주는 100% 소각 원칙

✓ 25년 3월 26일 5,500억원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(25.3.26~26.3.25) 체결 이후 7월말까지 **약 4,687억원(407만주) 취득**

자사주 매입·소각 현황



회사별 자사주 매입·소각

No	매입 금액	매입 주수	매입 기간(신탁계약 기간)	소각일
①	4,000억	8,701,000	23.3.17 – 24.3.15	24.3.29
②	2,402억	3,951,000	23.9.21 – 24.3.29	24.4.5
③	5,002억	6,090,941	24.3.22 – 25.3.21	25.3.21
④	5,001억	4,614,700	24.9.26 – 25.3.28	25.4.14
⑤	5,500억	-	25.3.26 – 26.3.25	(취득 중)*

* 25년 7월말 기준 약 4,687억원(407만주) 취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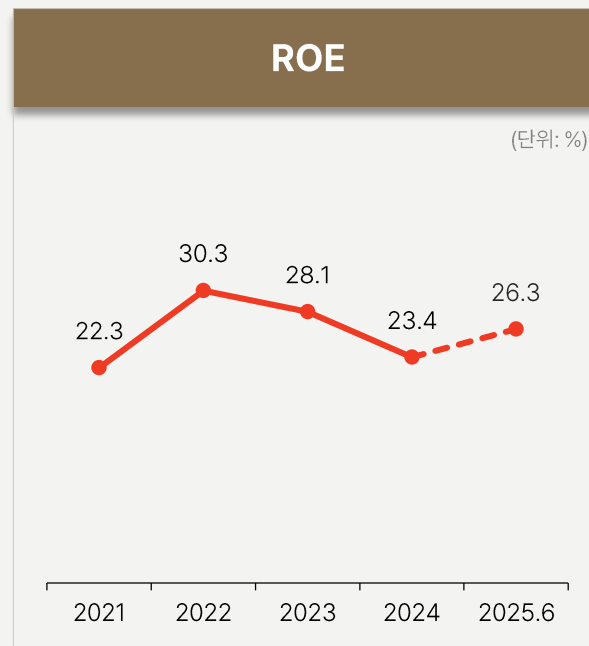
분기별 발행주식 수 추이

(단위: 백만주)	1Q24	2Q24	3Q24	4Q24	1Q25	2Q25
기초 주식수	203.4	194.7	190.7	190.7	190.7	184.6
매입*	1.8	3.1	2.9	2.4	2.3	2.5
소각	8.7	4.0	-	-	6.1	4.6
소각 반영 기말 주식수	194.7	190.7	190.7	190.7	184.6	180.0

* 분기별 매입 자사주 수

2. 시장 평가 지표 현황

(1) 주요 지표 현황



*ROE는 IR 공표 기준 (지배 순이익/(기초, 기말 지배 자본 평균))

*25년 6월 PBR과 PER은 Bloomberg 추정치 컨센서스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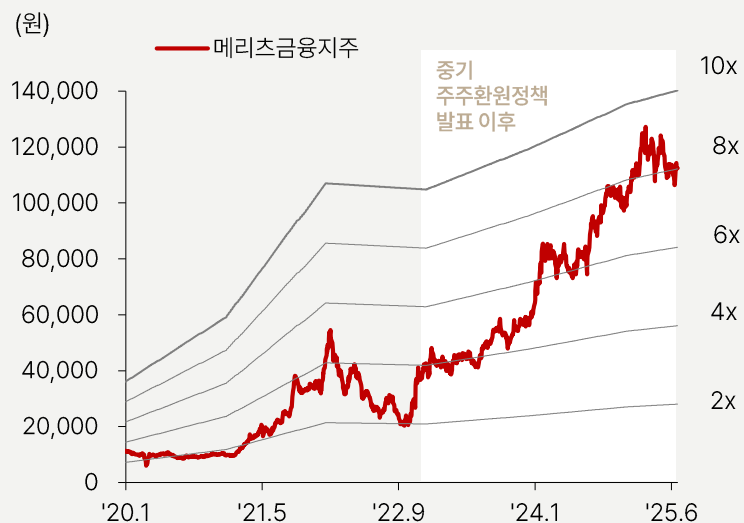
주요 지표 현황

- ✓ 2025년 6월 기준 ROE는 26.3%로 주요 글로벌 금융사 평균 12.5% 대비 여전히 탁월한 효율성 시현
- ✓ 2025년 6월 기준 fwd PER은 8.0배로 글로벌 금융사 평균 12.7배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
- ✓ 자본 효율성(ROE) 대비 시장 밸류 지표(PER, PBR)는 저평가 수준 지속

2. 시장 평가 지표 현황

(1) 주요 지표 현황

PER Band



- ✓ 당사의 자사주 매입·소각 수익률의 기준인 fwd PER은 25년 2분기 동안 7.6~8.9배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
- ✓ 자사주 매입·소각 수익률(1/fwd PER)이 요구수익률 10% 수준을 도달하기 위한 fwd PER 10배까지 여전히 갭이 존재

PBR Band



- ✓ 2025년 2분기 PBR은 1.6~1.9배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
- ✓ 기업가치 제고 계획(24년 7월)에서 언급한 Gordon 성장 모형 기준 Implied PBR은 2~3배 사이로 현 수준과 차이가 존재
- ✓ 현 주가는 저평가 수준으로 자사주 매입 중심의 주주환원 지속 예정

* Gordon 성장 모형 기준 Implied PBR = (ROE - g) / (COE - g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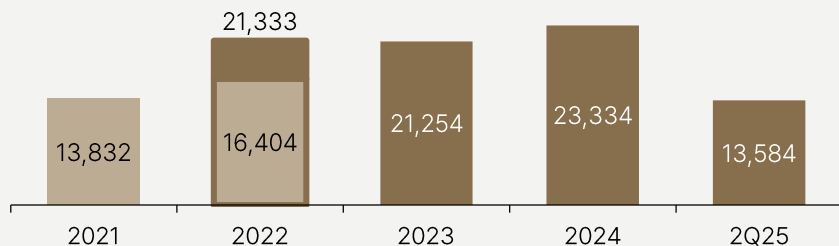
3. 기타

2Q25 요약 재무 현황 (YTD 기준)

당기순이익 추이

(단위: 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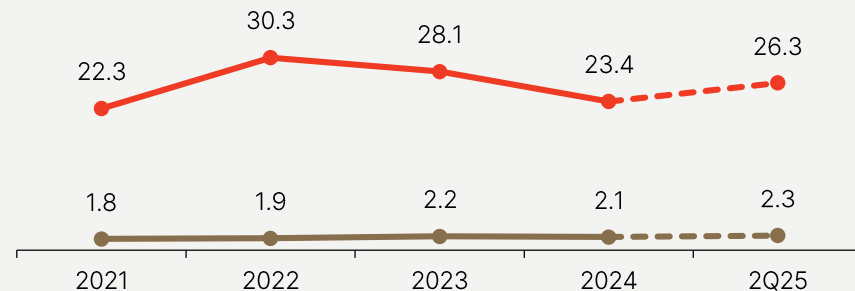
■ K-IFRS17 ■ K-IFRS4



수익 지표 [ROE & ROA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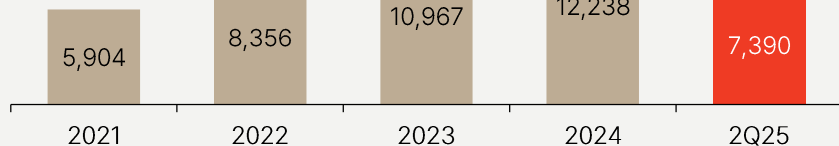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● ROE ● ROA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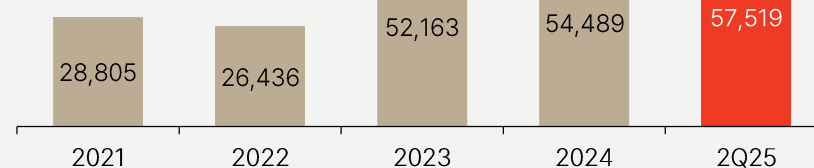
주당순이익 [EPS]

(단위: 원)



주당순자산가치 [BPS]

(단위: 원)





Disclaimer |

본 자료는 주주 및 투자자의 공정한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료의 수정 혹은 변경에 대한 고지 의무 및 책임이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기반으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를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, 변형 등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